

투데이 칼럼

아름다운 언어의 선택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며 살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희망의 언덕을 향해 달려간다.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재능력을 일깨우는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스타 제조기'라고 불리는 연출가가 있는데 그는 인간의 잠재능력을 끌어내는 명수였다. 가능성 있는 신인을 발견하면 자기의 인맥과 능력을 동원하여 연출을 하는데 그 방법은 신인 스타를 무대에 올려놓기 전에 각계의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퓌다발과 축전, 격려 말을 선사하게 한다. 그러면 무명의 신인은 분에 넘치는 기대에 감격하여 무대에 올라서자마자 자기의 능력은 물론 잠재능력까지도 발휘하게 된다는 방법인데 바로 스피치의 힘과 연출의 힘이다.

역할 연기를 통해서 잠재능력을 일깨우는 방법이 좋기는 하지만 이런 찬스는 어렵고 만들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대화(see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쉽센터링 대표

talk)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스피치의 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思考)의 교량역할이다.

사람들의 생각은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이 말이 튀어나가면 당연히 생각의 내용도 튀어나가게 된다. 상대방의 대화는 물론이고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는 자기대화에도 있어서도 효과적인 말의 선택이 성패를 좌우한다. 여기서 자기의 잠재능력을 일깨우는 자기대화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첫째, 아름다운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 밝고 분명하며 긍정적인 말이어야

한다. 어둡고 불분명한 부정적인 말에서는 결코 건전한 자기 이미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 대화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시각적으로 아름다워야 할과 동시에 청각적으로도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재진행으로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현재의 실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에 직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자기의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면 현재 의식면에서의 노력과 잠재의식의 힘이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셋째,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려

야 한다. 잠재의식은 컴퓨터와 비슷해서 입력 시킨대로만 작용한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명령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넷째, 자기대화의 주어(主語)는 모두 "나"라야만 한다. 잠재의식은 사람을 식별하지 못하므로 대상은 '나'라는 말로 입력시켜야만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동하기 마련이다.

가장 간단하고 위력있는 자기 대화를 소개하면 "나는 나날이 점점 좋아진다"고 말해보자.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과 고민만 하지 말고 자기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생활하자! 현명한 스피치인으로 거듭나자! 풀미어 박사의 '백만불짜리 성공계획'에서도 "꿈을 실현하겠다는 욕망을 불태우라, 계획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요한 결의를 가져라"고 했다. 말대로 되는 세상이다. '스피치 에너지는 꿈을 실현시킨다'는 사실앞에 자녀교육과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모두 앞장서자.

독자제언

여름철 차량 내 확인으로 안전사고 예방

더운 여름철 밀폐된 차량이 폭발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이런 사고는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여름철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확률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피약발에 주차해 놓으면 자동차의 실내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간다. 차량 안에 1회용 가스 라이터나, 스프레이 등 인화성 물질을 두어 뜨거운 열로 인해 폭발을 하는 등 대형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어린이를 두고 내리거나 에어컨을 켜둔 채 휴식을 취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여름철 차량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에 인화성 물질을 놓아두지 않고 자동차의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자동차 바디 커버가 없는

경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건 등 덮개를 전면 유리에 덮어만 두어도 실내온도 상승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또한 오랜시간 햇빛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모든 창문을 열어 두고 문을 열고 단기를 수회 반복하면 실내온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가 어린이 유치원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경우에는 어린이가 차의 경적을 눌러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차 경적을 누를 힘이 되지 않으면 운전석 의자를 잡고 엉덩이나 발을 이용하여 누를 수 있도록 사전에 어린이집 및 가정의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차량 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신서운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아찔한 절벽 다이빙



14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레드볼 클리프 다이빙 월드 시리즈가 열려 한 다이버가 레바논의 명소 리우시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이 대회에는 세계 18개국에서 24명(남자 14, 여자 10)의 다이버가 출전해 27m와 21m 높이에서 경기를 치른다. 레드볼 클리프 다이빙 월드시리즈는 세계 각지에서 총 7번의 경기를 치르며 레바논에서는 5번째 경기가 치러지고 있다.

전북의 탄소산업 더 성장해야

전북의 탄소산업은 더 성장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내 탄소산업의 선두주자 자리를 위해서도 그렇다. 탄소산업에 관한 한 전북도는 그 어느 광역지자체보다도 먼저 시작했다. 그런데 현재 전북 탄소산업의 규모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야심차게 추진해온 역사가 십수 년이 지났지만 갈 길이 먼 까닭이다. 탄소산업이 전북 발전 견인을 약속했던만큼 대형 사업이 되어야 한다. 백년 먹거리 사업이라며 대대적으로 말했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북도는 탄소산업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뚜렷하게 해야 한다. 후발주자 지역인 다른 광역지자체가 한국 탄소산업의 대표주자가 되려고 욕심을 품고 있을 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전북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북이 바로 그렇다. 탄소산업의 역사가 십 수년인데도 그 발전상이 우뚝하지 못하다면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오랜 세월의 공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를 위해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더 욕심을 내야 한다. 전북도가 탄소 소재 및 부품 분야 육성에 힘을 실어준 것은 잘한 일이지만 기업군 형성이 안되면 상

용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탄소 산업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전북의 탄소산업에 대해 이대로 관망하고 하니 물어볼 수가 없다. 백년먹거리 사업이라며 홍보할 때만해도 관련기업 240개 유치와 3만5천명의 고용 창출을 말했었는데 말이다.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현실을 보면 아쉬움 그 자체다. 홍보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용된 인원이 적으니 말이다. 그리고 호성 공장도 그렇다. 2013년에 준공할 때만해도 2020년까지 135000여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순조롭게 지켜졌는지 궁금하다. 이제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이다. 아직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액수를 온전히 투자하도록 전북도는 총용을 해야 한다.

전북도는 탄소산업에 관한 한 최고 자존심을 가져야겠다. 경북 쪽보다 사업을 추진해온 역사가 오래이기 때문이다. 탄소산업이 지역 경제를 떠받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직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다. 전북도는 탄소산업의 성과를 말할 때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한다. 전북도는 전북의 탄소산업에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사설

용담댐에 태양광 설치라니? 수자원공 제정신인가?

아무래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정신이 아니다. 용담댐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나서니 하는 말이다. 도대체 누가 그따위 발상을 하고 계획을 굳혔는지 어이가 없다. 수자원 측은 관행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언어도단이다. 아무리 생각이 없고 공감능력이 없다 해도 그렇지 어찌 그같이 돼먹지 않은 망발을 계속 고집한단 말인가. 용담댐은 식수원이다. 용담댐은 식수원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그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식수원이 오염될 위험을 내다보면서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려드는 것은 패악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상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당연한 대응이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고 거의 다 혈조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북도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의 이번 건은 전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용담댐 내 수상 태양광 설치라니 그 누가 좋다고 하겠는가. 거기 엄청난 전기가 생산된다한들 그 누가 반색하겠는가. 도민들에게는 20메가와트 규모라

는 소리도 귀가 시끄럽고 연간 2만4026메가와트를 생산할 거라는 소리도 정신 사나울 뿐이다.

수자원공사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용담호의 물은 전북도민의 70%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수자원은 도민의 바람을 존중해야 한다. 수자원은 전북도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도민의 바람은 깨끗한 식수를 낚는다.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다. 전북도의 입장은 낚았다. 안정적으로 도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일이다. 도대체 이보다 소중한 것이 무어란 말인가. 수자원 측은 일자리 창출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전북도민을 깔보고 내뺀은 말일 터이다.

전북도는 강경해야 한다. 새만금 태양광 설치 문제에 미온적으로 나오니 급기야 이 같은 일이 풀출하고 있다. 도시 개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라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마땅치 않은 터였다. 그런데 용담댐 식수원에 태양광 설치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수자원 공사가 무슨 말을 해도 귀를 닫아야 한다. 용담댐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시도는 정말로 미친 것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